

바른정당, 통합과 '탈당' 거론...위기↑

황영철 "전당대회 이전 일정한 방향 정해 질 것" 탈당 가능성 거론 유승민 등 자강과 '마이웨이' 고수...내달 전대 차질없이 치뤄야

바른정당 일부 통합파 의원들이 11일 전당대회 전 탈당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또다시 분당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파 황영철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별 탈당 후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는 질문에 "전당대회 이전에 아마도 일정한 방향은 정해 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현재 저희가 한국당에 혁신의 결과물들을 내놓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정한 시그널이 오면 통합 분위기는 더 무르익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 내에 당대

통합 논의가 성숙되지 않는다면 통합파 의원들이 따로 어떤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탈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 유승민 의원과 만나 보수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무성 의원 역시 이날 전당대회 이전에 한국당과의 보수통합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도 통합파의 탈당 움직임에 맞닥뜨린 전대 전 보수통합을 압박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고착화가 된다"며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보수대통합을 해야

다"고 밝혔다.

반면 당내 자강파 의원들은 마이웨이를 택한 분위기다. 자강파 구심인 유승민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합의한 11월13일 전당대회를 차질없이 치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통합파 의원들을 향해서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못주고 변화하지 않는 한국당이 기어들이는 통합은 보수정치와 한국정치의 앞날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자꾸 통합 얘기를 하면서 바른정당을 분열시키고, 혼드는 그런 당 안팎의 행위들을 중단

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중진 의원들이 추진중인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에 불쾌감을 나타냈던 유 의원은 전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 이례적으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통합파의 보수통합 추진에도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 가능성을 열 어두며 바른정당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당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탈당을 만류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의 이같은 설득에도 일부 의원들이 개별 탈당을 결행할 경우 전당대회는 자강파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대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도 유 의원과 하태경, 박인숙 의원 등 모두 자강파 의원들이다.

서울=김은호 기자



국민의당 김태일(왼쪽 두번째) 제2차당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당위원회 제3차 최고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대표, 제2차당위원회 김 위원장, 천정배 정치혁신위원장, 주승용 지방선거기획단 준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제2차당위 "공화주의 가치 주목...정체성 재확립해야"

국민의당이 당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기존 진보보수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당제의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제2차당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철수 대표, 김태일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호·이찬열·조배숙·주승용·천정배·송기석 의원, 장진영 최고위원, 최원식 전 의원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나라에는 2개의 큰 정당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정당은 자유라는 가치를 독점, 또 하나의 큰 정당은 민주라는 가치를 독점하고 있다"며 "자유, 민주란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힘 있는 자의 자유, 승리자의 독식을 위한 민주다. 이런 제대로 된 민의에서의 자유, 민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힘이 있건 없건, 승리했건 안했건, 다수자건 소수자건 구별 없이 다양한 가치와 이해로 함께 어울려 실현되는 게 올바른 나라이고 바로 공화주의란 가치다"며 "국민의당은 공화주의란 가치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 가치 하에서 제대로 된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정치의 새 지평을 어떻게 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당 정체성 재확립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꼽으며 자기반성도 토론했다.

조배숙 의원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당 정체성"이라며 "국민의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양당 기득권 체제를 깨뜨리고 국민과 함께 다당제 만든 정치개혁 선도정당이다. 정치지형을 바꿨지만 당 정체성

성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 있다"고 평했다.

지난 5월 최고위원직에서 사임한 후 공식 회의 석상에서 처음 발언을 한 문병호 의원은 "지금 제2차당위에 필요한 것은 뚜렷한 목표와 속도감"이라며 "창당 후 지난 1년 7개월 동안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선 패배와 당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다. 이 부분에 관한 엄정한 평가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여당과 협력할 부분은 확실하게 협력해주고 지적할 부분은 정말 무서운 야당이 돼 확실하게 견제해 주어야 한다"며 "그것이 건전한 여야 관계 확립"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에 모든 것을 목표로 두고 맞춰야 한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좌절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속도감 있게 뭔가 추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 실제 국민들이 준 득표를 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 차지하는 현재 잘못된 선거제도에 기인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지가) 과반 되지 않는 정당이 과반 의석 차지해 의회권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비민주적 제도는 이제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뉴스

추미에 "洪, 통신조사가 정치사찰? 무책임 발언"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경찰·군 등 수사당국이 자신이 수행비서 통화기록을 조회한 것을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할 데 대해 "어이없는 주장이다. 제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감을 앞두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쟁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정치보복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허풍성실"이라며 "국가권력기관을 동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함께 조사하자고 하는데 전형적인 낚은 불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의 공색한 정치보복 프레임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꺾을 수 없다"며 "정쟁 만들기를 통한 적폐청산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홍준표 "이회창·이명박·박근혜, 당 인물 키운 적 없어"

"당 맡은 사람들, 자기만 해먹고 나가는데 관례" 비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당에서 인물을 키운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전 총재가 당을 맡으면서 인물을 키운 적이 없다"며 "이 전 총재는 자기 혼자만 독점하고 대선실패 2번하고 나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당에 들어온 지 23년째 되는데 이 당의 특징은 당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만 해먹고 나가는 게 관례였다"며 "김영삼(YS) 시절에 YS가 이 전 총재를 키웠는데 둘 사이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도 당에 들어와서 큰 게 아니고 밖에서 큰 인물"이라며 "이 전 대통령도 당에서 인물을 키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박 전 대통령도 당에 들어와서 큰 게 아니고 밖에서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컸던 인물"이라며 "이회창·이명박·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철저히 자기가 당을 운영할 때 자기만 끝내면 그 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나는 그러지 않겠다"며 "이 당에 대신에 나갈만한 후보들을 키우고 그 역할을 전부 합쳐야 당이 전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당 운영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차기 우리당의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새로운 인물을 2~3명 영입할 것"이라며 "영입을 위해선 우리당이 안정적으로 28%의 당 지지율을 확보해야 한다. 28%만 확보되면 야당은 선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마지막으로 "오늘 대외협력 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활발히 접촉해 당세를 확장해주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은재·이종배 의원이 임명됐다.

서울=김은호 기자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